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Time With God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Time With God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 마틴 디 한 2세 6

1.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7

1) 시간 설정의 원칙 / 10

2) 기록의 원칙 / 22

2. 만남에 방해가 되는 것들..... 29

1) 집중력 부족 / 31

2) 감정 상실 / 39

3) 훈련 부족 / 43

4) 실천 부족 / 49

3. 올바른 질문..... 55

하나님과 친해지는 행복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분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행 정도가 아니고

큰 축복이요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는 그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싫을 것입니다. 그 분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지요.

그것도 자주 만나야지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지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만나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책에는 그 분과 친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재미있고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져서 나머지 일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발행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한국 오늘의 양식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김 상 복 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당신이 아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규칙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와 성서(성경 말씀)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치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며 신앙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 소책자의 저자인 피터 데이슨 목사는 이러한 갈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 우선의 생활」에서 발췌한 이 글에서 데이슨 목사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이 글은 우리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재발견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1

하나님과 그의 좋은 만남

AP 통신사에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어 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국세청에 보내는 고백서였습니다. 한 납세자가 보내 온 이 편지에는 “나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밀린 세금만큼 1,200 달러 수표를 동봉합니다”라고 했으며, 이름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일 주일이 지나서도 잠을 잘 수 없으면 1,200 달러를 더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간단한 추신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서 무언가를 하려 하면서도 지나치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추리 소설의 저자인 아더 코난 도일 경은 덕망이 높은 열두 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보냈던 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전보 내용은 단순히 “빨리 도망쳐라. 모든 일이 발각되었어”라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이 열두 명은 모두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흉악한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죄의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백한 죄는 자백하여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너무 괴로워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죄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지 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싶은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매일 죄의식만 느낄 뿐입니다.”

죄의식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은 너무 흔히 나타납니다. QT(경전의 시간), 기도, 성경 공부, 명상 등 어떤 것이든지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오래 또는 잘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들 대부분은 비참하다든지 무엇인가 부족하다든지 불가사의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보다 만족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교사와 봉사자를 위한 세미나에서 “당신이 천국에 가면 무엇이 가장 부끄러울 것이며 또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조사 결과 압도적인 응답은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생활 속에서 발버둥쳐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해 보았으나 제대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이러한 불만은 다음과 같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두 가지 원칙, 즉 시간 설정과 기록하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해결 가능합니다.

(1) 시간 설정의 원칙

시간 설정의 원칙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문제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날 온종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죄의식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또 “나는 오늘 아침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어! 아주 은혜로웠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까? 다시 한 번 의욕을 잃고 죄의식을 느끼며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생깁니다. 그 중 몇 가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하나님과 만나서 보내는 시간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신앙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 -한 친구로서 -하나님을 보다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느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은 한 개인에게 바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대화하는 것만으로 한 개인과 결코 친하게 사귄 수는 없습니다. 꼭 특정한 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용한 시간의 양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한 시간의 질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애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지침으로 삼지 마십시오.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일단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당신의 가장 우선으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정한 그 시간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확정되고 생활화되기 전까지는 정해진 시간을 바꾸지 마십시오. 아침이든 낮이든 또는 밤이든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피해야 하는 함정

일정한 시간을 정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게으름과 율법주의 확실한 시간이 정해짐으로써 우리는 게으름과 율법주의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두 가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사랑하시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용납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좀 게으를 수도 있지요”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다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착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런 경우는 만약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먹으면 지나치게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렘 31:3)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과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만이 게으름과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규칙적이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면 그 원동력에 불을 붙게 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결핍 일정한 시간을 정하면 우리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일정표에 정해진 시간을 갖고 그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래, 이번 주에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났으니,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식의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한 주일 전부를 빼먹기 시작하고, 따스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 버립니다.

방해 정해진 시간은 방해라는 함정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정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태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꼬마 녀석이 들어와서 “아빠! 이 벌레 좀 봐, 내가 잡은거야!” 한다든지 “아빠! 이리 좀 와서 불 좀 켜 주실래요?” 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영적 차원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방해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시간과 적

절한 장소를 마련하면 대부분의 그러한 방해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방해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내적인 방해 중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먼저 어질러진 책상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 즉 다 못한 일을 마저 끝내려는 충동입니다. 치우려는 집요한 충동 즉, 미완성된 일을 해결하려 하는 충동입니다.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려고 했다가 쓰다만 편지, 못다 읽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마무리 못한 일들에 눈을 돌렸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일을 한 가지 더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님과 보내기로 계획한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해 버린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흐트러진 책상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큰 수건을 가져다 책상을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나 밀린 일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는 것과 해야 할 일 때문에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방해를 예상하십시오. 방해물이 생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을 못 쓰게 만들거나 적어도 그 시간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

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려고 종종 밖에 나가셨으나 한적한 곳을 찾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항상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정했습니다(시편 5:3, 59:16). 그는 또한 성전에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기 위한 정해진 시간을 명했습니다.(대상 23:28~32)

현실적 고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일은 우리의 일과와 수면 시간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과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모임, 마감시간, 병든 아이들, 의사와의 약속 등 언제 방해받을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10분밖에 없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10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해” 하며 얼마간의 시간도 전혀 들이지 않습니다. 이

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짧은 순간들일지라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세를 갖기 시작하면 비로소 양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랑이 커질수록,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짧은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10분씩만 가지고는 주님과 관계를 깊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만 내기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좀 더 긴 교제의 시간을 드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을 지킬 때 비로소 자주 드리는 짧은 시간보다 몇 번의 좀 더 긴 시간이 더욱 의미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들이도록 신중을 기하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렇게 하십시오.

매일 동일한 시간을 지키십시오

시간 정하기의 둘째 원칙은 일단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변함없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같은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월요일은 8시, 수요일은 12시, 금요일은 저녁 식사 후 등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직업상 도저히 안되거나 혹은 아주 가끔 일정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패턴과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일을 시작하면, 즉 책상 앞에 앉거나, 일터에 나가거나, 비행기를 타면, 우리 마음은 하나의 패턴과 틀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일상적인 마음의 틀을 따라 행동하고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속성을 지닌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갖다보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적응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은 정신적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과가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나 교대 근무로

일하는 시간이 종종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정하여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생활 속에 허락하신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정해진 패턴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시간 설정의 셋째 원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길고 짧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 말고는 시간을 채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

만약 제가 약혼 후 약혼자와 하루에 겨우 5분 정도만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깊은 친분을 쌓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도록 확실히 해서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은 아마도 어떤 뜻있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최소 20 ~ 30분은 되어야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받아들인 것을 충분히 생각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에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최소한 10분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엔 가능한 빨리 20분이거나 30분으로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시간 늘리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시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10 : 27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날들이 길어지느니라”라고 표현했

습니다. 경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최소한 4시간 이상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결코 잘못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기억력을 강화시키시며, 우리가 하는 일을 더욱 능률적으로 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항상 효과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얻는 내적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양질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하루 일과 후에도 더 많은 힘이 남아있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항상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공급해 줍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습관의 문제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가지는 것의 한가지 중요한 이점은 고질적인 습관의 문제를 피하도록 도와 준다는 것입니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나 계속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반드시 성경 읽기 50퍼센트, 기도하기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75퍼센트의 기도와 25퍼센트의 성경 읽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습관의 속성을 지닌 창조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습관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판에 박힌 형식을 좋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공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구절을 좀 더 오래 연구해봐라. 그 구절에는 내가 진실로 네가 배우기를 원하는 진리가 있단다.” 또는 성령님께서, “오늘은 온종일을 성경 공부에 사용하 여라. 네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단다. 네가 이 진리를 곧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너의 마음에 떠오르게 할 누군가가 있단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다되었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길 바란다. 이 사람은 네 기도가 필요하단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융통성과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성령님의 권유하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을 가지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즉각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면 좋지 못한 습관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엔가 놓아둔 물건을 찾아오려 하거나 똑같은 장소를 맴도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2) 기록의 원칙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두번째 원칙은 그 교제의 시간 동안 얻은 결과를 기록하는 것과 우리 노력의 성과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방법이나 기량이 어떠하든간에 ‘방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그 방법에 의해 달성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구 결과로 얻는 생각이나 의문 또는 원칙 등을 적은 기록들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며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도 됩니다.

기록하는 이유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목적, 즉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을 기록할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에 생긴 일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기억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만으로는 우리가 읽는 것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읽은 내용의 전체적 모습을 체계화할 수도 없습니다. 보완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재밌고 행동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일한 기초입니다. 기록은 보존뿐 아니라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에 매여 있게 되면 매번 머지않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의 여백에 적는다거나 종이를 낭비하고 있다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쓸데없는 메모들을 많이 했었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진리를 많이 얻어 왔습니다.

또한 기록을 함으로써 당신은 체계적인 결과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진 자료가 입력 되면 계속적으로 그 자료를 어떤 형태나 순서대로 정돈하려 합니다. 연구하고 읽은 것을 순서대로 기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얻은 정돈 안된 정보들은 처리 불능 상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조각조각의 정보들은 버려질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저마다 꼭 맞는 틀과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2. 평가와 발전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둘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계획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개선시키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부진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 흥미를 잃게 됩니다. 기록을 하면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재검토, 조사,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기록함으로써 가장 철두철미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가장 잘 배웁니다. 우리가 받은 인상을 적어 놓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료는 우리 머리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특히 의미있는 방법으로 기록해 둘 때 더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방법

하나님의 진리가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한 기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목록 베드로 후서 1:5~7절에서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

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열거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나열하여 기록됨으로써 각각이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각 개념들이 단계별로 계단을 이루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제시한 기독교인의 성장 모델은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만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길게 열거된 부분이 나오면 적어보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조성 창조적 사고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 선지자들이 나타난 곳을 도표로 그려보면 그들이 언제 예언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므로 그들의 예언의 보다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대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왜 그 같은 예언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성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 및 대조 비교는 사물간의 유사점을 찾는 데, 대조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은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과 육체 안에서 행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조를 표로 만들어 보면 그 차이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반복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얻는 다른 한 방법은 반복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한 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매우 경제적이시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헛되이 쓰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우리 자신의 기도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것들을 뒤돌아보니 어떤 기도는 승낙, 어떤 것은 거절 또 어떤 것은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에는 수백 가지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같이 기도의 기록들을 다시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굉장한 일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에 관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초창기 기도들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활이 이 옛 기도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기도문의 내용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또한 나 중심적인 기도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들에는 나의 관심 사항들만 나타나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나 개인의 기도 기록이긴 하지만 지금만큼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 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종종 나의 기도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충분한 생각없이 급하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기도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기억력도 묶은 잉크로 기록해 놓은 것보다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

만남에 방해가 되는 것들

클래런스 존스라는 농부가 큰 바위가 놓여 있는 밭을 경작할 때 생긴 일입니다. 그는 이 바위 때문에 여러 개의 보습과 경운기 한 대가 망가져서 신경과민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 또 하나의 보습을 부러뜨리고는, 수 년간 그 바위로 인해 겪은 고생들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바위를 치워 버리려고 밑에 지렛대를 놓는 순간 어이없게도 그 바위가 겨우 1.5센티미터 두

게 밖에 안되어 쉽게 쪼개서 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손수레로 바위를 실어다 버리면서 그 바위로 인해 고생한 것을 떠올리며 좀 더 일찍 손을 썼더라면 얼마나 편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쁠 경우 장애물을 우회하여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 장애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의 장애물 주변에서 일을 합니다. 이 바위처럼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시간을 들여 처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 약간씩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63명의 남녀로 구성된 연령층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급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보는 데 의견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모든 다른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처럼 보였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집중력 부족으로서, 이것은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성과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감정의 상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추측하게 하고 의욕을 잃게 합니다. 셋째는 훈련 부족으로, 이는

우리를 번덕스럽게 하고 좀처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부족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하게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휘저어 놓으며 두 손을 묶어 놓습니다.

(1) 집중력 부족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대답은 거꾸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집중력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의 글을 읽기에 앞서서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네 가지만 따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경우 집중력을 잃게 하는 네 가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오락가락하는 생각도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아마도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그 원인들을 분류해 봅시다. 집중력 부족엔 첫째로 육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즉, 졸리거나 배고픔, 춥거나 덥고, 병들고, 방해받거나, 낮이 길고 밤이 짧아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적 원인이 있습니다. 싫증이 나거나 다른 일이 생각나서 옆길로 빠진다는지 또는 잠념에 잠기게 됩니다. 셋째는 정서적 원인이 있는데 이는 죄의식, 근심이나 걱정, 화를 내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집중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육체적 준비

집중력 부족이 육체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면 육체적 준비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졸음이 가장 적은 시간을 선택해야 하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침대 위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면 당신은 위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심중팔구는 잠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이 그랬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만약 당신이 집에 있게 되면 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벨소리를 줄여 놓으십시오.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방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뛰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 6:6)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 다른 것은 접어 두고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환자라든가 극도로 피곤하

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누워서 쉬어라”고 말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이나 성경 읽기를 걱정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잠이 부족할 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신적 준비

집중력 부족이 정신적 원인에서 기인한다면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지루하다고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성경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몇 분 후 내일 낚시갈 준비가 다 되었는지 또는 주방에 가스불이 아직 켜져 있거나 앓은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지루함과 눈 앞의 일들이 정신 집중을 방해합니다.

지루함이나 흥미를 잃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주된 이유는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긴 성경을 읽을 때 대략 다섯 장 정도 읽고 나면 우리 마음이 에스겔서가 아닌 딴 곳으로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고요? 그건 에스겔에 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의 예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연구서나 성경에 관한 주석을 놓고 그 책의 개요를 알아 보십시오.

많은 성경이 우리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은 그 책

들이 고대 문명의 세부 항목을 매우 자세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예비 공부와 정신적 준비를 통해 그 책들은 매우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방해물 중 가장 흔한 것은 아마도 “번뜩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나 잠재 의식 중 생각나는 시사 문제들일 것입니다. 낚시 여행이나 가스불 끄는 것에 대한 생각이 집중력을 방해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모지와 연필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와 창조의 영감은 우리 마음속에 불쑥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입니다. 이렇게 영감이 번뜩이는 곳에서는 경건의 시간도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는 당신 곁에 항상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곧바로 기록하십시오. 그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데는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지만 기록을 함으로써 공부하는 동안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잠깐 동안 잊고 있어도 됩니다.

정신적 방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매우 신

속히 움직이므로 조용히 기도하면 생각이 오락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큰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에 속박되어 오락가락하는 생각들이 억제됩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신 집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준비

집중력 부족의 세번째 원인은 감정입니다. 그 중에서 죄의식, 화냄,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감정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잘 처리될 때까지 우리는 집중력이 약화됩니다. 집중을 잘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육체적 원인인지 정신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감정은 정신적 그리고 영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때로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우선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감정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해 보십시오.

자백하지 못한 죄는 위의 세 가지 감정 모두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거나, 이를 수 없는 목표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종종 죄는 우리가 한 일 때문보다는 하지 않은 일로 부터 기인합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감정에 대해 성경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요일 1:9)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어야만 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자주, 길게, 정기적으로, 또는 깊이 있게 하지 않았다는 죄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진짜 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다면 그건 진짜 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의 시간에 대해 어떤 지침이나 제한도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감정을 극복하는 비결은 순종으로부터 얻는 만족입니다.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길이나 깊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측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집중을 도와주도록 조절하는 감정입니다.

영적 준비

집중력 부족의 마지막 원인은 영적 분야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엡 6:12)이라고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적, 즉 마귀에 관하여 그리고 그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재하는 인간이요 실존하는 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마귀의 계락을 무시하지 말라(고후 2:11)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마귀는 그저 약간의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분을 점점 두텁게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만술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 사이의 일들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느낌을 갖도록 시도합니다. 즉 하나님을 특별한 경우에만 만나면 친척같이 느껴지게 하려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죄의 멍에를 씌우고 비탄함으로써 그런 짓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다고 사기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주입시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붙잡아 매고 그들의 실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 11:3)

일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한 순서로 목사님의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나무라고 싶겠지만, 당신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생각은 단 한가지 근원, 즉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즉시 기도하여 그런 생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님의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의 행동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사전 준비, 계획, 그리고 메모지와 연필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혼란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작은 성과를 얻도록 해 줍니다.

(2) 감정 상실

다음과 같은 말이 여러분들 귀에도 익숙니까? “가끔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을 때 어떻게 나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삶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대로 하세요”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경험, 처한 상황 및 직면한 문제에 따라 쉽게

바깥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바깥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시편 42장 5절에서 시편 작가는 이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의 감정이 침체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그리 불안하여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지가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들이 자신이 경험하길 원하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내가 이렇지?” 하고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고 그 질문에 또한 답해 봐야 합니다. 그건 자백하지 못한 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감정을 점검하고 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 42:5)라고 스스로를 권고하였습니다. 당신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작가는 끝으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 42:11) 하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상태의 표현인 얼굴 표정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점검하고 권면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당신이 헌신의 시간을 가질 기분이 안 날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분이 썩 좋지 않으니까 기분 전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은 기분을 바꿔 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열정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적극적 사고 방식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단순히 치부해 버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한 후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보다 행동을 함으로

써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는 반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기분이 아니면 기분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행동을 계속해 나가면 기분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때때로 나는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결혼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아내도 “서약합니다”라고 말했고 증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것은 우리의 기분과는 관계없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결혼한 사실이 나의 기분에만 의한다면 나는 몇 번이고 다시 결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은 기분이 좋은 날만큼이나 기분이 침체된 날도 많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기분을 너무 믿지 말고 그 대신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결혼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그에 합당한 할 일을 계속해 나가면 결혼했다는 느낌이 언제나 다시 생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건전한 관계라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분과 우리 사이의 친교가 우리의 기분 때문에 침체될 때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분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친교는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적으로 어리석은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낙담했었으며 감정을 다시 일으켜 북돋우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온갖 좋고 나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임상 심리학자인 래리 크랩은 성숙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도 내고 죄의식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3) 훈련 부족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시간이 더욱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잘못된 신앙의 견해를 고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마치 요술처럼 저절로 잘 풀릴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

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묘한 착각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훈련 부족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 앞 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 부분입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이 백 퍼센트이고 우리가 행하는 부분 또한 백 퍼센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할에만 의지하고 그저 쉬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도 또한 주십니다.

게으름을 인식하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삶의 원인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사실상 죄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게으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런 쪽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아담이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 그의 본성은 죄로 감염되었습니다. 그 죄로 감염된 본성이 우리에게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게으른 면이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지려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이며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저는 게으릅니다. 그것을 시인합니다. 이번 주엔 89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노력합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게으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습관을 재 확립하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우선 순위를 지키십시오

훈련에 있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신앙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면서도 훈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면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우선 순위를 조장하는 것

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우선 순위에 관해 생각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떠하길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떠하길 원하는가? 나는 이 교제 중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위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고 또한 답해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2.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 하루에 5분, 30분 또는 한 시간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가? 매일 또는 격일로 또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전략이 목표의 도달 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3. 나는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가격표에는 얼마가 적혀 있습니까? 얼마간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투자하는가에 따라 그 목표의 품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굳은 결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소망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즉,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내가 흔쾌히 지불해야 할 것들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뛰어나게 되는 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멋진 교제를 원하면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훈련에 관한 권면과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한 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를 결심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똑같은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운동 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전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목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연습 및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시간에 관한 우리의 토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관성이 있을수록, 자주 교제의 시간을 가질수록, 시간이 길수록 더 좋습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관성과 횡수 그리고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더 강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오래, 좀 더 자주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분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분께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이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1편에서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 분의 사랑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일지라도 다윗은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기도는 그의 마음에 매일 그리고 종일토록 있었습니다. (시편 25 : 4~5, 63 : 6, 119 : 55, 97)

(4) 실천 부족

이것은 경건의 시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입니다. 실천 부족은 경건의 시간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랑의 우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을 뜻합니다. 사랑은 서로간의 애정어린 말뿐 아니라 애정어린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심으로써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후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일인 고기잡이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세 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네게 맡기는 나의 일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어떤 사람을 그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교제의 가치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천이야말로 하나

님과 교제의 가장 의미있는 결실입니다. 교활한 사탄이 우리의 이러한 만남의 본질적 요소를 없애려 드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만약 이 만남이 방해받거나 저지당하거나 혹은 단지 약화만 되어도 우리의 대적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관성있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 부족, 감정 상실, 그리고 훈련 부족으로 인해 1루에조차도 진출하지 못합니다. 3루를 돌 때쯤에야 비로소 실천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합니까?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진리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봉사하길 권하고 친절을 베풀고 자신과 남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해로운 습관을 바꾸는 일, 잘못된 사고 방식을 교정하거나, 다루기 힘든 죄를 극복하는 문제들은 변화를 위해 실천에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매일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의 말씀에 더욱 익숙해지면 우리는 일상 생활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간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하루 동안 할 일들을 할 수 있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이 유지하고 그를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서히 실천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보다는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깨끗한 생활의 뒷받침 없이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들은 중간중간 오랜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곤 하셨습니다. 이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시간 여유를 주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에게도 마

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구세주로 알게 된 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위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갈 1:15~18).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울에게 준비시키실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과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사 55:6~11).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그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끝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려면 그

러한 관계들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올바른 질문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면서 최대한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활에서 핵심적인 관계들을 강조하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나의 고민거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가 조금 전 읽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생활의 어느 부분이 개선을 필요로 하는가?

다음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생

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약속은 있는가?

세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진리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가족, 교회 친구들, 혹은 내 주위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끝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탄을 이겨내도록 깨우쳐 주고 계시는가? 사탄은 내가 피해야 할 죄로 나를 계속 유혹해 오고 있는가? 사탄은 여러 가지 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고후 2:11, 11:3, 14)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잠시동안 비취 보는 것은 몇 시간 동안 성경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의 목적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히 4:12).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최종적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눅 6:46~48)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독자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란 이 소책자는 피터 데이슨이 쓴 「신앙 우선의 생활」이라는 책의 일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피터는 그리스도인 리더십 개발 센터의 리더십 개발 이사로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의 부교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자는 RBC(라디오 성서 연구회)의 비영리 단체인 디스커버리 하우스 출판사에서 출판됩니다.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디스커버리 하우스 책자 전문의 발췌 인쇄물을 번역하여 〈한국 오늘의 양식사〉를 통해서 소책자로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오늘의 양식사〉 회원들과 이 소책자를 받아 보게 될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차일환 기획/정호균 회계/최석주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발송/임길택 홍보/김대환 상담/김영자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인 쇄 / 1999. 11. 10

발 행 / 1999. 11. 14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사랑하는 이웃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영적 성장을 위한 주제별 소책자 12권이 나왔습니다

시리즈 12권이 케이스에 포장 되어 있으며, 주제별로
날 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성장시리즈 12권

- | | |
|--------------------|-------------------------|
|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 ⑦ 행복한 결혼생활 |
|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 ⑧ 남자다운 남자 |
|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 | ⑨ 여자다운 여자 |
| ④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있는 사람 | ⑩ 걱정없이 살고 싶다 |
| ⑤ 균형있는 가정생활 | ⑪ 다시 찾은 사랑 |
| ⑥ 왜 살아야 하나? |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구독신청 : 한국 오늘의 양식사 ☎ (0342) 780-9565~7
선교헌금 권당 600원 (제작비와 우편요금)

「신앙성장 시리즈」 구독신청 및 선교헌금 안내

청원및 헌금자	성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											
발 행 처	성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							
출 판 사	출석교회			직분									
신 자 라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부수												
		헌금입금은행 : ()은행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십시오.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할렐루야선교회>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외환 : 026-13-33750-7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 463-070

전화(0342)780-9565~7 FAX (0342)780-9569

신앙 성장 시리즈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실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소책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점검하여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방해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보여 줍니다.

-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 만남에 방해가 되는 것들
- 올바른 질문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Time With God"을 『한국 오늘의 양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